

조손가족 조부모의 우울 감소를 위한 기독교 상담의 고찰 : Hargrave의 가족 용서 모델을 적용한 성인 자녀 용서를 중심으로

박 안 나*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조손가족 조부모의 우울 감소를 향상을 위해 Hargrave가 제안한 가족 용서 모델을 적용해보고 기독교 상담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이다. 조손가족 조부모의 우울은 조손가족 형성의 원인인 성인 자녀의 불행으로부터 시작해 손자녀 양육 현실에서도 성인 자녀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으며, 이는 노년기 삶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효과적인 용서를 다루는 상담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성인 자녀 용서를 위한 조손가족 조부모 상담을 Hargrave의 가족 용서 모형 중 구출 범주에 적용하면, 먼저 '통찰' 단계에서는 성인 자녀의 일을 자신과 분리하여 객관적으로 보는 경험을 제공하고 성인 자녀의 일과 자신의 반응이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자각하게 한다. 다음으로 '이해' 단계는 성인 자녀를 한 사람으로써 이해하는 기회를 통해 용서의 가능성을 높이고 분노와 같은 부정 정서는 줄이고 해방감과 같은 긍정 정서를 늘여 조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된다. 이 용서 모형은 기독교 상담에서 조손가족 조부모를 위한 상담에 활용할 가치가 있으나 단순한 인지적 재구성이나 이기적 목적의 용서 선택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은 존재로서 관점에서 용서하려는 마음의 동기를 다룰 수 있을 때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조손가족, 용서, 하그레이브, 가족 용서 모델, 기독교 상담

• 논문 투고일: 2020년 3월 1일

• 논문 수정일: 2020년 4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5월 9일

*헤세드 상담센터 실장

I. 여는 글

조손가족은 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자신의 자녀를 돌볼 능력을 상실한 부모 세대를 대신하여 조부모 세대가 손자녀의 부모역할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가족을 일컫는다(김미영, 윤희미, 2015: 146). 한부모가족지원법 내 조손가족에 대한 특례조항에서는 조손가족을 보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의 조부모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규정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7).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가족해체가 원인이 되어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조손가족은 공식적으로 그 존재를 처음 파악한 1995년 약 3만 5천 가구였으나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해 2010년 이후 10만 가구를 넘어서(통계청, 2011; 이영애, 방은령, 2018: 492) 1990년대 이후 가장 특징적인 가족 형태로 손꼽힌다(김원경, 전제아, 2010: 654). 우리 사회의 이혼율 추세나 고령인구 증가, 혈연중심의 유교 문화 등을 감안한다면 2030년에는 약 27만 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경향신문, 2019).

조손가족은 가족 구성원인 조부모와 손자녀 모두가 경제적 자활 능력이 없어 매우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되며, 저소득 조손가족 조부모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독거노인보다도 지원이 시급한 경제적 최극빈층이다(민기채, 2011: 337). 이러한 점 때문에 그동안 수행된 연구는 조손가족의 가장(家長)인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현저히 많았는데(김원경, 전제아, 2010: 660) 최근의 연구들은 정책 제안 뿐 아니라 이 정책들이 효과적 구현을 위한 상담심리적 보완을 강조하고 있다(김경호, 소순창, 2011; 김동진, 김한호, 우국희, 2012; 김양호, 서홍란, 2010; 김혜경, 2012; 김승희, 2016; 정은미, 2010; 신명주, 2019; 안유숙, 2016; 오경석, 2010) 연구자들은 조손가족 조부모의 개별 특성에 맞춘 전문 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이정화, 최원규, 2012), 조부모의 인생 배경을

고려한 내면 개입(황미진, 정혜정, 2014: 16), 특히 우울, 불안, 분노 등의 정서를 다룸으로써 자아존중감 및 자아분화의 향상을 위한 개입을 제안하였다(김명희, 김신희, 2015: 245; 김세영, 2015: 268). 조손가족 조부모의 심리적 상태는 손자녀 양육의 질뿐 아니라 조손가족의 결속력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조부모를 위한 심리적 지원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고 있다.

한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진교훈, 2019: 921)는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년기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다양하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는 가족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안녕으로(김영희, 신성일, 2013: 3682) 이는 조손가족 조부모를 위한 상담 방향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조손가족 조부모가 가족 관계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정서는 그들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은 가족 관계 맥락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삶의 질은 개개인의 주관적 느낌과 생각이라는 점에서(신성일, 김영희, 2013: 3675) 조손가족 조부모가 가족 관계 맥락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조손가족 조부모의 정서와 관련하여 최해경은 이들의 스트레스가 우울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조손가족 조부모의 우울정도를 조사하였는데 조사대상자의 90% 이상이 우울을 보이고(2002: 215), 75% 이상은 중등도 이상(2006: 128)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조손가족 조부모가 가족 관계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로서의 우울을 다룰 필요가 있는데, 최근 삶의 질을 다루는 연구들은 부정 정서를 낮추고 긍정 정서를 높이는데 '용서'가 매우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어(서경현, 이상숙, 양승애, 2012: 435)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용서 관련 연구가 활발하다. 용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메시지(김준, 2016: 259)로 기독교 상담의 주요한 가치와 자원이므로 조손가족

을 위한 기독교 상담은 조손가족 조부모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유익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조손가족 조부모를 위한 기독교 상담에서 우울감을 다룰 때에 용서를 주제로 하여 조부모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Hargrave(1994)가 제안한 가족 용서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조손가족 조부모의 우울을 가족관계 맥락에서 살펴보고, 가족 관계에서 용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도록 한 Hargrave의 용서 과정의 적용을 논한 후 기독교 상담에의 활용을 논하며 끝을 맺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조손가족 조부모의 우울

우울은 조손가족 조부모의 심리적인 안녕을 살펴보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지표로(장영은, 2018: 1047),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조부모들에 비해, 배우자나 다른 가족을 돌보는 다른 가족 수발자에 비해 높은 정도의 우울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최혜지, 2008: 123). 조손가족 조부모의 우울은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 또는 생계에 대한 부담감 등 주로 조손가족의 형성 이후의 스트레스 환경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최근 연구들은 조손가족 형성 이전 시기의 영향, 특히 그들이 손자녀의 부모역할을 하게 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김한호, 우국희, 김동진, 2012: 13; 이영애, 방은령, 2018: 501). 이들이 손자녀를 맡아 키우게 된 것은 성인 자녀의 이혼이나 가출, 실종, 질병 또는 사망 등(황미진, 전해정, 2014: 4)이 주된 원인으로, 이와 같은 자녀의 불행은 조부모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 뿐 아니라, 분노나

슬픔,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하는데, 특히 자녀의 가족 해체는 조부모의 우울감과 행복감과 같은 정서의 정도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서 성인 자녀의 가족 해체로 인해 손자녀를 맡게 된 조부모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은 물론 자신이 자식을 잘 못 키웠다는 자책과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깊은 우울감을 경험하게 된다. 노인들은 문제를 내재화하거나 내부귀인하려는 특성이 있고(김세영, 2015: 268) 조손가족 조부모는 자녀의 가족 해체가 자식을 잘못 키운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여기면서 손자녀 양육을 일종의 업보로 받아들이게 된다(이영애, 방은령, 2018: 504). 또한 손자녀를 양육하는 현실에서도 성인 자녀의 그림자는 계속 되어 조부모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부모 역할을 하지만 아무리 주어도 성인 자녀의 품을 채우지 못하는 한계와 무력감으로 성인 자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부모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부모가 될 수 없는 소속감 상실감이 우울로 이어지기 때문이다(김미영, 윤혜미, 2015: 167; 김명희, 김유미, 정여주, 2008).

이처럼 조손가족 조부모는 성인 자녀의 불행의 시점에서부터 우울을 경험하고 우울은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더욱 심화되는데 이 과정 전반에 2세대 성인 자녀가 배경으로 존재한다. 조손가족은 말 그대로 1세대 조부모와 3세대인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지만 이 가족에 '부재'한 성인 자녀는 조손가족의 형성 전부터 형성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조부모의 심리적 상황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조손가족 조부모의 우울의 원천인 것이다. 성인 자녀는 조부모에게 있어서 애증과 원망(김혜선, 2009: 82), 분노(이영애, 방은령, 2018: 504)의 대상이자 막연히 기다리는 대상이며, 조부모의 의식 속에 항상 자리를 잡고 있는 존재이므로(김혜선, 2009: 84) 조손가족 조부모는 우울은 반복적이 되면서 만성화 되는 것이다.

조손가족 조부모의 우울은 자신의 건강 뿐 아니라 손자녀 양육에 일관성을 잃거나 감정적인 태도가 되어 손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데 그 심각성이 크다(황미진, 정혜정, 2014: 5). 양육자인 조부모가 우울하면 손자녀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손자녀를 거부하거나 비판적으로 대하면서 자기몰입적이 되기 때문에 손자녀 역시 그 관계적 특성으로 인해 우울해질 가능성 또한 높다(최혜지, 2008: 129). 특히 손자녀가 어릴수록 조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 그 정서가 아동에게 그대로 전가되기 쉬워 조손가족 손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조부모에 대한 개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이윤화, 김동기, 2011: 157).

실제 조손가족 조부모의 우울은 양육 스트레스와 함께 자살의 주요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으며(송유미, 이선자, 2011: 807), 자녀세대의 가족 해체로 조손가족이 된 경우 조모의 우울감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이정화, 최원규, 2012: 434) 조손가정 형성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2세대 성인 자녀의 이혼이나 가출 등으로 인한 가정해체로 분석되고 있어(여성가족부, 2010; 이영애, 방은령, 2018: 501) 조손가족 조부모를 위한 심리적 지원은 단순한 차원의 우울 감소 개입이 아닌,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족 관계, 특히 조부모의 우울의 원천이 되는 2세대 성인 자녀를 고려하여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맥락에서 개입이어야 되어야 한다. 조손가족 연구자들은 하나의 가족으로서 조손가족을 위한 통합적이며 전문적인 가족상담, 가족치료를 주장해왔으며 여기서 가족은 조손가족의 가족 구성원인 조부모와 손자녀 뿐 아니라 원가족, 특히 성인자녀와의 회복 접근도 필요한 것이다(박수선, 2013: 54; 박선희, 조계표, 2019: 425; 윤혜미, 장혜진, 2012: 282).

2. 조손가족 조부모의 우울과 삶의 질

노년기의 우울은 노화와 상실 등 신체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기는 매우 흔한 증상이나 다른 연령층에 비해 예후가 좋지 않아 재발률이 높고 치매로 이어지거나 자살 생각이나 시도를 높이기도 해 우울증은 노인 삶의 질 저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손꼽힌다(이지현, 양수진, 2019: 152). 특히 노인의 경우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신체적 질환 동반이 흔해 불안장애나 트라우마 관련 장애 환자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심각한 수준의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정동희, 심은정, 2019: 550). 우울을 일으키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데 특히 가족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낮은 경험 빈도에 비해 높은 수준의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고 다른 스트레스에 비해 복합적이고 연쇄적인 영향력이 있다(이지현, 양수진, 2019: 153).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은 가족 관계에서 오는 부정적 정서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신성일, 김영희, 2013: 3683). 조손가족 조부모가 성인 자녀의 불행을 통해 우울을 느끼는 것 또한 바로 그 관계가 부모와 자식이라는 가족 관계에서 오는 고통과 스트레스 때문이며, 또 이후 손자녀의 양육을 통해 우울이 심화되는 것도 자신의 자식이 낳은 자식, 즉 손자녀라는 가족 관계에서 오는 슬픔 때문이다. 이처럼 형성 자체가 가족 관계에 얽혀있는 조손가족의 가장인 조부모는 성인 자녀의 불행으로 경험하게 된 우울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손가족 조부모의 우울은 조부모의 삶의 질 뿐 아니라 손자녀와의 관계에 주는 영향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조손가족 조부모의 우울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데, 손자녀와의 관계는 다시 조부모에게 우울감을 주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조부모에게 돌아오게 된다. 조부모는 성인 자녀를 생각하

면서 우울감과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기 때문에 성인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하거나 반감을 표현하게 되면서 손자녀에게 친부모에 대한 발언을 금기시하거나 비난을 하게 된다. 손자녀에게 그들의 부모 이야기를 감추는 것이 손자녀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거짓말까지 하며 숨기는 경우도 있다(김미영, 윤희미, 2015: 168). 친부모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움을 늘 마음에 담고 살고 있는 손자녀는 조부모의 행동에서 친부모에 대한 말은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하게 되어 말은 물론 얼굴 표정으로도 애써 내색하지 않게 되고(김미영, 윤희미, 2015: 165), 조부모가 친부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느끼는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게 되어 조부모와 정서적 장벽을 쌓게 되기도 한다. 이처럼 원가족인 성인 자녀의 불행으로부터 온 우울 정서가 현재 가족인 손자녀와의 정서적 장벽으로까지 이어지고, 그것은 다시 조부모에게 우울감을 주면서 조손가족 조부모의 삶의 질은 더욱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3. 조손가족 조부모의 삶의 질과 용서

삶의 질은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주관적인 느낌과 생각이기 때문에 정서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신성일, 김영희, 2013: 3674). 용서는 바로 이 정서 조절의 기능을 고리로 삶의 질과 연결된다. 용서 연구의 대표 학자인 Everett Worthington(2006)은 용서가 분노, 미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제한함과 동시에 공감, 동정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고, Enright(2004)는 부정적 정서 제한에 머무르지 않고 긍정적 정서를 갖게 되어야 진정한 용서가 완성된다고 주장하였다(김준, 2016: 262, 재인용). 이처럼 용서는 부정 정서를 낮추고 긍정 정서를 높인다는 점(서경현, 이상숙, 양승애, 2012: 435)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자원이 되는데, 특히 노년기는 지나온 자신의 일생에 의미를 부여하고 다

가을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용서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은 전 생애에 대한 만족에도 영향을 주어 더욱 중요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울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위협하는데(서경현, 이상숙, 양승애, 2012: 436), 용서는 우울과 같은 부정 정서를 감소시키며 자아존중감과 같은 긍정 정서는 증가시키므로(서경현, 이상숙, 양승애, 2012: 436, 재인용; Enright 2004), 용서를 통해 개인의 과거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노년기의 행복과 삶의 만족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우리 고유의 정서인 ‘한’이나 ‘화병’ 처럼 타인에게서 부당한 상처를 받고난 뒤 그 상처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위정선, 윤가현, 2011: 64) 용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며, 분노와 애증의 대상인 성인 자녀를 마음에 품고 사는 조손가족 조부모에게도 용서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상담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노인의 주관적 행복에는 원한을 갖지 않는 것보다 용서를 하는 것이 더 결정적이어서 노인의 행복 수준은 자신에게 부당한 일을 한 사람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에게 부당한 일을 하게 된 사정을 이해하게 되는 시기에 가장 높아(서경현, 이상숙, 양승애, 2012: 443), 조손가족 조부모가 인지적으로 상황을 재해석하도록 하도는 것은 조부모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것이다. 최근 조손가족 연구는 가족의 결속력을 높여 어려운 일을 겪어도 극복할 수 있도록(이미란, 2015: 329) 조손가족의 관계 향상과 회복을 강조해 성인 자녀와의 관계 회복 접근도 제시하는데, 조손가족 조부모가 성인 자녀를 용서하는 작업은 이제까지 응어리진 채 풀지 못했던 상처에 집중된 삶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손자녀와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와 이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조손가족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에서 용서의 과정을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가 살펴보자. 용서는 단회적인 결단이나 행동이 아닌 일

련의 단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지적 재구성의 ‘과정’이며(손운산, 2018: 82), 기독교 상담에서도 용서는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시간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여정이다(김준, 2016: 275). 학자들은 용서 과정 모델 또는 모형을 제시하며 용서의 실천을 강조해왔는데 Linn과 Linn(1978), Smedes(1984), Enright(1996), Flanigan(1992), Hargrave(1994), Worthington(1998; 2003), 이경순(2008) 등의 용서 모형이 있으며 이들 모형 중에서 Flanigan과 Hargrave는 가족 관계에서 발생한 상처에 대한 용서를 다루었다(위경선, 윤가현, 2011: 75). 상처 받은 개인에 초점을 맞춘 Flanigan의 모델에 대조적으로 Hargrave는 가족 내 피해자 뿐 아니라 상처를 준 가해자를 포함하여 가족 관계를 활용한 용서 모델을 제안했는데, 조손가족을 위한 상담은 하나의 가족단위로서의 접근하는 통합적인 가족상담의 필요성이 강조 되는 바 본고는 가족 관계 용서를 위한 치료적 모형인 Hargrave 가족 용서 모델을 조손가족을 위한 상담에 적용하고자 한다.

4. Hargrave의 가족의 용서를 위한 치료적 틀

Terry D. Hargrave는 Boszormenyi-Nagy의 상황적 가족치료이론(Contextual Family Therapy)을 기반으로 하여 가족 관계의 사랑과 신뢰를 재수립하는 과정에서 ‘용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용서 모형을 구축했다(Hargrave, 2004). 상황적 가족치료이론은 가족 체계 이론에 관계적 윤리를 적용한 이론으로, 여기에서 윤리란 가족 관계 사이의 균형과 공정함을 의미한다(홍영택, 2005: 126). 이 이론은 가족 관계에서는 가족 간에 사랑과 신뢰를 주고받아야 그 균형과 공정함이 유지된다고 보고(Hargrave, 2004), 사랑이나 신뢰를 주어야 할 사람이 주지 못하는 불균형의 상태가 된 것을 빗댄 개념으로 비유해 그 관계

의 회복을 빛을 청산하는 방법으로써 가족 관계의 회복을 설명한다. 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빛이 청산되어야 하고, 빛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누구인지, 어떤 부채를 지고 있는지를 통찰해야 한다(홍영택, 2005: 129). Hargrave는 ‘면제(exoneration)’ 개념을 가족 용서의 중요한 기초 작업으로 보고 여기에 기초해 직접적인 화해로 나아가는 과정을 체계화하여 가족 간의 용서를 위한 치료적 틀을 제안했다. 따라서 이 틀은 크게 두 가지 과정 즉, ‘면제’로부터 ‘용서’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손운산, 2018: 193; Hargrave, 2004: 36). 이 후 Hargrave는 이 두 가지 명칭을 바꾸었는데 면제는 ‘구출(salvage)’로, 용서는 ‘회복(restoration)’으로 사용했다. ‘면제’와 ‘용서’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에는 면제 과정이 용서의 전 단계 정도로 인식되었지만 ‘면제’만으로도 용서의 작업이 완료되는 경우 또한 용서라고 인정하며(Hargrave, 2004) ‘면제’를 용서의 핵심이며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아가게 돕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강조하기 위하여 명칭을 ‘구출’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회복’이 관계회복을 위해 가해자와 상호 작용하여 용서라는 행위를 구체화하는 행동적인 개념이라면, ‘구출’은 통찰과 이해라는 인지적, 심리 내적 기능에 더욱 초점을 맞춘 과정으로 가족 관계가 어떻게 깨지게 되었는가를 이해하고 상처를 명료화하면서 말 그대로 미래의 가족 관계를 상처가득한 과거로부터 구출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구출의 기능은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동시에 상처가 있었던 그 관계에서 보호하는 것이다(Hargrave, 2004). 이와 달리 ‘회복’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보상의 기회 주기’와 ‘명백한 용서 행위’의 단계로 이루어져 가해자에게 보상할 기회를 주고, 직접 만나 의식(ritual)적인 행위를 통해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단계이다. <그림 1>에 Hargrave의 용서 모형을 제시하였다.

가족 관계의 용서			
구출(salvage) : 사랑과 신뢰가 없는 관계가 주는 피해 인식		회복(restoration) : 사랑과 신뢰를 다시 형성하는 노력	
통찰	이해	보상의 기회주기	용서의 명백한 행동

〈그림 1〉 Hargrave의 가족 관계 용서의 모형

다시 강조하지만, 구출과 회복은 반드시 두 과정 모두 완료되어야만 용서가 완성되거나 순서대로 되어야 용서 작업으로써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용서는 구출과 회복 단계 사이를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구출 단계에서 용서 작업을 끝내는 것이 현명하거나 유일한 작업인 경우도 있다(Hargrave, 2004). 이는 가족 관계에서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는 말이나 행위를 하는 것보다 피해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강조한 것으로, 상황과 관계에 대한 통찰과 수용, 보호와 이해를 통해 자유를 누리는 과정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적 가족치료이론을 주창한 Nagy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용서에 있어 직접적 화해를 묘사하기보다는 내면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면죄나 관계의 재구성과 그것을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자유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홍영택, 2005: 131). 용서를 연구한 학자들 또한 용서가 한 사람의 내면적 과정임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Smedes는 ‘용서란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작용으로 내면화하고 사적인 것’으로 보았고(Smedes, 2005), Worthington은 용서와 화해를 구분하여 내면적 과정은 용서로, 가해자와의 상호 작용은 화해로 보기도 하였다(Worthington, 1988). Hargrave도 화해의 개념인 ‘회복’을 포함하였으나 결국 내면의 작업을 가족 용서의 핵심으로 보았다. 그렇기에 구출 범주만으로도 용서라고 본

것이다.

내면 작업인 ‘구출’은 ‘통찰’과 ‘이해’로 이루어진다. 이는 가족 관계 안에서 상처를 주고 받는 상황과 패턴에 대한 통찰을 통해 가해자라는 다른 가족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이 가족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보게 되고,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가족의 미래에 미해결된 상처가 덮칠 위험과 고통에서 나를 포함한 가족을 ‘구출’하는 것이다(Hargrave, 2004). 앞에서 논의했듯이 이 단계의 통찰과 이해는 모두 용서이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통찰과 이해는 용서가 주는 자유를 느끼게 한다. 결국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이 가족 관계에서 용서의 작업을 할 때에는 내면을 다루는 작업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성인 자녀의 용서를 다루는 조손가족 조부모 상담에도 적용 된다. 연락이 두절되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성인 자녀를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는 물론, 연락이 되는 경우에도 구출작업은 조부모의 진정한 용서를 위한 효과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

구출 범주 안에 있는 통찰과 이해의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통찰’은 상처를 일으켰던 일, 관계에서 손상을 입은 일의 핵심을 명확히 해(손운산, 2018: 194) 무엇이 어떻게 관계에 손상을 가져왔는지, 이 일로 다른 관계도 피해가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상담에서 흔히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그 일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손상이 일어난 사이클과 패턴으로부터 한걸음 떨어져 상처가 되었던 일을 객관적으로 보면 정서적 혼란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되고 이 통찰로부터 역기능적인 상호 작용을 명확히 하게 되면 미래의 상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그것들을 바꿀 수 있다(손운산, 2018: 195).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상처를 주는 관계에 대해 그 패턴과 영향을 보게 되는 통찰을 얻게 되면 피해를 입지 않고 또 그 피해를 주지 않게 된다(Hargrave, 2004).

그 다음으로 ‘이해’는, 그 손상이 왜 일어났는지를 묻고 답을 찾는 과정으로 이해가 되면 될수록 고통도 감소될 수 있다(손운산, 2018: 197). 특히 가해자가 겪은 불의를 확인하게 하거나 가해자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알도록 돕는 것은 가해자에게 느끼는 분노의 짐, 수치심과 죄책감, 고통이라는 감정의 짐을 떨쳐버리는 효과가 있다(Hargrave, 2004). 이 때 피해자는 가해자를 면제해주는 위치, 가해자보다 높은 위치에 서게 되는데 이 또한 가족 관계에서 균형을 깨게 되어 관계와 감정의 안정성을 파괴하게 되므로 피해자가 ‘내가 가해자의 입장이었다면?’ 이라는 질문으로 자신도 한 인간으로서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동등한 위치에서 가해자를 바라보게 된다.

Hargrave의 모형을 적용하는 조손가족의 조부모 상담은 조부모의 내면의 통찰과 이해로 성인 자녀를 용서하여 조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 서두에서 논하였듯이 본고에서 논하는 조손가족 조부모 대상 상담은 조손가족을 위한 정책의 가시화를 위해 정책을 보완하는 실제적인 상담인데, 제도에서 지원하는 법적 조손가족은 2세대 부모가 사망, 장애·질병, 장기복역, 이혼·유기, 가출, 장기실직 등으로 아동을 사실상 부양하지 못해 부모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회복 단계와 같이 가해자와 실제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용서 행위를 구체화 하는 단계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김혜영 외, 2011). 조손가족 손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와 완전 단절된 경우가 가장 높고 거의 접촉이 없다는 보고(김혜선, 2004: 99) 또한 조부모의 내면을 다루는 용서 작업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조손가족 조부모의 상담에서 조부모의 내면 중심의 용서 작업, 즉 ‘구출’ 단계에서의 통찰과 이해의 적용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5. 조손가족 조부모 상담에서 통찰과 이해

1) 통찰

조손가족 조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에서 통찰 작업은 조손가족을 형성하게 된 배경이면서 용서의 대상인 2세대 성인 자녀에게 일어난 일부터 다루게 된다. 2세대 성인 자녀에게 있었던 불행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노년기에 자기노출이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어, 노인은 자신이 받았던 부당한 일을 타인에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거나 속이 후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서경현, 이상숙, 양승애, 2012: 444). 노인의 회상은 비교적 충분한 상담시간이 제공되고 충분한 수용과 공감에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내면적 우울을 감소시키므로 내담자에 따라 사진이나 일기 등을 적극 활용한 상담기법도 고려할 수 있다(이현림, 배강대, 2004: 416). 조부모가 자신과 자녀의 삶을 회상하면서 분노, 무력감, 슬픔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개방되면 자기 이해와 합리화와 내적 성찰을 이루게 된다(이현림, 배강대, 2004: 417). 따라서 상담사는 조부모가 자녀에 대한 치부를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공감을 통해 조부모가 그 동안 마음에 담아 놓았던 이야기까지 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마다 과정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태도로 ‘어떤 문제가 발생 했는가’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관계가 왜 깨졌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상담자와의 상호 작용 안에서 이야기 하는 동안 정서적 혼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조부모의 손상을 국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흔히 조손가족 조부모는 성인 자녀의 불행이 자신의 탓에서 비롯된 것으로 연결지어 자신의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삶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연민에 빠지게 되기 쉽다. 혹은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를 탓하게 되어 상담의 방향 뿐 아

나라 통찰의 초점을 놓치며 다른 관계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손운산, 2018: 197). 따라서 상담사는 조부모가 성인 자녀의 불행이 일어났다는 사실과 그것으로 인해 관계가 깨졌다는 사실은 수용하도록 도우면서 그 일이 자신과 관련된 과거의 일들과 근거 없이 얽히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생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래에 미칠 영향 즉, 손자녀와의 관계이면서 자신과 손자녀의 미래의 일이다. 조부모의 심리적 상태는 손자녀들의 비행이나 성격적, 정서적 이상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황미진, 정혜정, 2014: 5). 2세대 성인 자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도록 하고 그 때의 감정과 생각을 인지하도록 해 보이지 않는 성인 자녀가 자신을 통해 현재 가족 관계 뿐 아니라 미래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자각하도록 도와야 한다. 결국 현재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통찰을 제공하는 것인데, 특히 성인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금기시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인 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감정이 지금 현재 가족인 손자녀와의 사이에 장벽이 되고 있으며 서로 모르는 척, 괜찮은 척 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 벽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이 작업이 명확하게 되어야 현재의 조손가족의 만족을 위한 가족 결속력과 유대감에 끼치는 손해와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더 깊은 상처를 예방할 수 있다. 때로 조손가족 조부모는 손자녀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 손자녀를 자신의 삶의 연장자로 생각하거나 손자녀와의 심리적 일체감을 이루기도 하는데(양경순, 한재희, 2013: 924), 조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손자녀의 아픔을 자신이 그대로 느끼며 현재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지각하게 되는 통찰은 조부모로 하여금 2세대 성인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가 얼마나 자신을 무능하게 만들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다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관계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며, 동

시에 손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중단하는 동기가 된다(손운산, 2018: 195). 즉, 조부모가 통찰을 갖게 되면 2세대 성인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금기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눈치를 보는 관계에서 치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 이해

조손가족 조부모를 위한 이해의 과정은 성인 자녀가 왜 자녀를 나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다. 조부모가 이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상담에서 성인 자녀의 이야기를 더 깊이 다루며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성인 자녀가 부모인 자신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과 심지어 성인 자녀의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치료적이며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이 된다. 물론 이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담사와 조부모 간 라포 형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상담자는 조부모의 피해의식 정도에 따라 접근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성인 자녀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닌, 그의 입장이 되어보게 하는 상담적 질문은 성인 자녀의 상황과 의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해 성인 자녀가 나를 괴롭힌 괴물이라기보다는 고통스럽고 상처 입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해준다. 이러한 통찰은 성인 자녀에게 느끼는 분노의 짐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심리적 해방의 중요한 지점이다. 성인 자녀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정죄와 비난을 멈추고 더 나아가 감소시키는 일은 조부모의 정서적 고통을 경감 시켜주는 것이다. 성인 자녀를 한 인간으로 이해하는 지점은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균형 잡히고 이성적인 태도를 가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제 '이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바로 '내가 성인 자녀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겠는가?'이다. 조손가족 조

부모는 이미 이러한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치료적인 과정 안에서 상담자는 조부모의 심리 단계를 파악하여 성인 자녀를 한 인간으로 이해하는 시점에서 조부모가 이 질문을 이전과 다른 태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성인 자녀가 있었던 위치와 상황으로 들어가 '그 상황에 내가 놓이게 된다면 나는 그보다 더 잘 할 수 있었을까' 라는 가정을 사용한 질문을 통해 보다 깊은 이해를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 '나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으리라, 더 잘하기 힘들었으리라' 는 생각(Hargrave, 2004)으로 나도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조손가족 조부모의 관점에 변화가 생겨 행동도 다르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성인 자녀는 최선의 노력 가운데에서 본의 아니게 가족에게 피해를 준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은 조부모가 그들을 자연스러운 인간으로서 이해하게 해 조부모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이전보다 균형 있게 바라보며 해방감을 느낄 수 있어 이전과는 다른 행동인 용서로의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해는 상처 그 자체를 고치지는 못하지만 가해자를 다르게 보게 되는 경험을 제공해 그동안 억눌렀던 분노와 수치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느끼게 해 결국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거나 없애준다(손운산, 2018: 197).

이 과정에서 조부모 자신을 향한 비난 줄이도록 돕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에서 다루었듯이 조손가족 조부모는 자신이 손자녀를 양육하게 된 것을 자신의 탓으로 여겨 업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을 비난하는 일이 깊어지며 자기 몰입이 되면 이는 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쳐 손자녀와의 관계에 유대감과 결속력을 잃게 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결국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해는 자신의 정신 안에서 부당한 행동을 일으키도록 내면화된 이미지를 객관화하기 시작하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이다(Hargrave, 2004). 따라서 상담자는 조부모가 자신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표현하도록 돕되 자기

비난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

통찰과 이해의 과정에서 손자녀와 함께 하는 상담이 필요할 수 있으며 상담자는 손자녀의 발달과 인지 등에 따라 손자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여러 변수가 있지만 통찰의 시간이 몇 회기가 되었던 조부모가 상황을 객관화하고 손상에 대해 파악하는 동안 많은 감정적 반응의 토로가 있을 수 있어 어느 정도의 통찰의 시간을 보낸 후 이해의 과정에서 손자녀와 함께 하는 것이 상담적 측면에서는 보다 나은 선택이라 사료된다. 조와 손이 함께 성인 자녀를 이해하는 것은 두 사람의 상처 치유 뿐 아니라 두 사이에 있는 장벽이 무너지면 파괴적인 상호 작용이 중단되고 새로운 상호 작용이 생기는 계기가 되어 조손의 관계는 보다 나은 관계가 될 뿐 아니라(손운산, 2018: 197) 손자녀의 미래와 가정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조부모가 이 일을 주저하지 않고 손자녀와 공유할 수 있도록 상담사가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조부모는 조손가족의 분위기를 어둡게 할 수 있고 먼저 밝힐 수도 있는, 약하지만 강한 주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6. 조손가족 조부모를 위한 기독교 상담에 적용 가능성

이제 지금까지 논한 Hargrave의 용서 모델을 조손가족 조부모를 위한 기독교 상담에 적용하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기독교적 관점에서 가정의 기원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로 교회보다 우선시되는 공동체로서 가정의 회복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엄예선, 2007: 103). 또한 용서는 사랑과 더불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다(오오현, 2005: 287). 따라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용서 작업의 틀로서 Hargrave의 가족 용서 모형은 기독교 상담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으며, 다양한 용서 모형 중에서도

가족 관계에서의 용서를 심층적으로 다룬 유일한 모형이라는 점에서도 그 가치는 크다.

Hargrave의 가족 용서의 틀은 두 가지 면에서 기독교 상담과 접목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조손가족 조부모에게 적용한 Hargrave의 구출 범주가 조부모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이것을 용서의 핵심으로 본 것은 성경이 중요시 여기는 ‘마음’을 중요시 한다는 점이다. 둘째, 용서 개념을 성경과 같이 빛의 탕감으로 보고 첫 단계를 ‘면제’로 명명하고 이를 가족 용서의 핵심으로 본 점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성경이 가르치는 용서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본질을 놓쳐 오히려 용서의 실천과는 멀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기독교 상담에서 이 모형을 활용할 때에는 이에 대한 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구출 범주는 심리 내적 작업이기는 하나 이 작업은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입은 손상을 인지하고 성인 자녀의 상황을 재해석하는 인지적 재구성이므로(한형준, 이희경, 2012: 762) 이 과정에서 조부모는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게 될 수 있는데(김준, 2016: 278), 이 때 인간은 자기중심적 성향으로 자기 연민이나 자기 변명이 될 수 있어 용서와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자기 몰입이 되면서 타인에 대한 관점 수용과 공감적 관심 수준이 적어지는 것은 용서를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결정 요인이기 때문이다(한형준, 이희경, 2012: 773). 둘째, 용서의 탕감 개념은 성경에서도 용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이나(마태복음 18장), Hargrave의 용서의 틀은 가족 관계의 give and take가 수평적 인간관계에서의 탕감을 가능하게 한다고 전제해 이는 인간이 자신의 자유와 평안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용서를 선택을 하는 것일 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용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성경은 수평적인 인간관계에서의 탕감이나 면제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내가 받은 탕감에 대하여 깨닫게 될 때만이 가능한 것, 즉 하나님과과 인간의 관계로부터 올 수 밖에 없다고 한다(오오현,

2005: 288). 따라서 성경은 자기를 향해 있는 인간 스스로는 결코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없으며 자기를 벗어나 자신과 세계를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수직적 차원에 대한 지각과 함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영적 깨달음만이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성경의 관심은 용서의 실천에 있으며(김준, 2016: 274), 중요한 것은 실천에 대한 동기이다. 조손가족 조부모는 성인 자녀를 용서하는 것이 조부모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더 큰 용서를 입은 사람으로서 기꺼이 순종하는, 더 나아가 나를 용서한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쁘게 실천하는 의미로서 의무(김준, 2016: 274)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에서 Hargrave의 가족 용서 모형을 조손가족 조부모에게 적용하여 상담을 통해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조부모의 시선을 자기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옮기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용서와 사랑에 대하여 인지하게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Hargrave의 가족 용서 모형에서 이해와 통찰은 상담에서 그 자체로도 조부모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성경이 강조하는 용서의 가치를 잘 아는 기독교 상담사는 통찰과 이해 과정을 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어 충분한 공감으로 조손가족 조부모의 마음을 위로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든든히 형성된 라포를 기반으로 자신이 겪은 상황에 대한 통찰과 자녀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잘 일어나도록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상담사는 한 발 더 나아가 상담의 방향을 조부모가 자신을 피해자가 아닌 탕감 받고 구출된 자로 바라보게 해 기꺼이 용서라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에 두고 상담을 해야 한다. 상담을 성경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담에서 성경의 권위를 최대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김준, 2013: 177). 따라서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되 조부모의 수준과 상황의 정도에 따라 민감하고 지혜롭게 이끌어야 한다. 반드시 이번 상

담에서 조부모의 진정한 용서를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은 가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과 같이 상담의 결실은 각자가 다르며 기독교 상담사는 조부모와 이 조손가족의 회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섬세하게 반응하여 이 가족의 회복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III. 닫는 글

지금까지 조손가족 조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상담에서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우울을 감소시키는 용서 작업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를 위해 Hargrave가 제안한 가족 용서의 치료적 틀에서 '구출' 범주의 '통찰'과 '이해'를 적용하여 고찰해 보았다. 이는 조손가족 형성 과정에서 일어난 고통과 이에 대한 미래의 영향에 대한 통찰과 성인 자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고 정서적 고통의 짐을 벗어 자유롭게 되는 과정으로서의 용서이다. 성인 자녀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또는 성인 자녀들이 용서를 구하는 상황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내적인 작업이다. 이러한 '구출' 범주의 용서 작업을 통해 조부모는 현재 및 미래의 관계를 보호하게 되며 이전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손운산, 2018: 192).

기독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용서 작업의 틀로서 Hargrave의 가족 용서 모형은 조손가족 조부모를 위한 기독교 상담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으나 기독교 상담사는 조부모가 통찰과 이해과정에서 자기 몰입이 되거나 이기적인 목적으로 용서를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인간으로서, 또한 하나님이 부여하신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기꺼이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동기를 다루어 가는 것이 필

요하다.

지금까지 조손가족 조부모를 위한 상담에서 Hargrave의 가족 용서 모형을 적용해보고 기독교상담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해보았다. 본 논문은 조손가족 조부모를 위한 기독교 상담에 가족 용서 과정의 적용을 고찰해 보았다는 것과, Hargrave의 가족 용서 틀을 적용한 국내 논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조손가족의 상담을 적용해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로 회복 범주의 '보상의 기회 주기'와 '용서의 명백한 행동'까지 적용하여 기독교 상담에서 활용을 고찰하는 연구, 용서 및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조손가족 상담 사례 연구 등을 제안하며 조손가족의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적 지원에 기독교 상담이 공헌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김미영, 윤희미 (2015).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와 손자녀의 가족관계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50, 145-177.
- 김세영 (2015). 죽음불안과 삶의 의미가 조손가정 조부모의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45(2), 262-270.
- 김승희 (2016).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본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문제 해결 방안. *육아정책연구*, 10(1), 1-30.
- 김유미, 김명희, 정여주 (2008).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접근. *사회복지연구*, 38, 123-163.
- 김원경, 전제아 (2010). 국내 학술지에 나타난 조손 관련 연구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653-671.
- 김 준 (2013). 기독교 상담과 성경: 성경적 상담 관점에서. *개혁논총*, 27, 161-188.
- 김 준 (2016). 용서에 대한 심리학과 성경적 고찰: 마태복음 18장 용서 비유를 중심으로. *충신대논총*, 36, 257-279.
- 김한호, 우국희, 김동진 (2012). 조손가족 손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추계학술대회*, 1-25.
- 김혜선 (2004). 조손가족 아동의 정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선 (2009).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의 손자녀 양육 체험이 조모의 삶에 미치는 의미. *노인복지연구*, 43, 61-92.
- 김영란, 김은지, 김혜영, 최인희 (2011). *조손가족지원방안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민성길 (1991). 화병과 한. *대한의학협회지*, 34, 1189-1198.
- 박수선 (2013). 조손가족 기능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실천 과정 기초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41-57.
- 서경현, 이상숙, 양승애 (2012). 노인의 원한과 용서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2), 433-448.
- 손운산 (2018). *용서와 치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송유미, 이선자 (2011). 조손가족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적응유연성의 관계 -

- 자아존중감, 공감, 내,외통제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3), 329-353.
- 신성일, 김영희 (2013). 노인의 삶의 질에 관련된 변인들의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4**(6), 3673-3690.
- 엄예선 (2007). **한국교회와 가정 사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 양경순, 한재희 (2013). 조손가정 조모의 심리적 경험 -서울지역 기초생활수급 대상 조손가정 조모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2), 911-930.
- 오경석 (2010).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인생이야기와 손자녀 양육경험. **한국보육지원학회지**, **6**(3), 65-84.
- 오오현 (2005). 기독교인 용서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 **상담학연구**, **6**(1), 287-303.
- 위경선, 윤가현 (2011). 과거 상처 경험에 대한 노년기 용서과정. **한국노년학연구**, **20**, 63-83.
- 이명용, 김승희 (2014). 조손가정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원방안 모색. **한국가족복지**, **19**(3), 549-572.
- 이미란 (2015). 일상적 건강성 및 가족 지지와 고령자 삶의 질.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329-330.
- 이영애, 방은령 (2018). 조손가족과 공동양육 조부모의 양육에 관한 질적 연구 내용 비교분석-2000년 이후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24**(3), 491-518.
- 이윤정 (2014). 조손가정 내 조부모의 여가활동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4**(2), 299-313.
- 이정화, 최원규 (2012). 사회적 지지가 농촌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3**(4), 419-439.
- 이지현, 양수진 (2019).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과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2**(4), 151-169.
- 이현림, 배강대 (2004). 회상기법 집단상담이 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5**(2), 409-421.
- 정동희, 심은정 (2019). 노인 우울 증상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의 네트워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2), 549-570.
- 진교훈 (2019). 고령화사회와 노인의 자기성찰: 노년철학. **한국사상과 문화**, **100**, 919-943.

- 최해경 (2002). 저소득층 조손가정 여성노인의 우울감과 관련 요인 연구. *한국 노년학*, 22(3), 207-222.
- 최혜지 (2008). 조손가족 조부모 우울의 실태와 작용기제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9, 122-149.
- 한형준, 이희경 (2012). 용서신념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를 통한 용서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3(2), 761-777.
- 황미진, 정혜정 (2014).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4), 1-22.
- 홍영택 (2005). 부모-자녀 관계와 용서. *목회와 상담*, 7, 121-148.
- Enright, R. D. (2004). 용서치유 - 용서는 선택이다(채규만 역, *Forgiveness is a Choice*). 서울: 학지사. (원전 1905 출판).
- Hargrave, T. D. (2004). 가족치료와 용서 - 세대와 가족간에 얽힌 상처의 치유 (문미선 역, *Families and Forgiveness. Healing Wounds in the Intergeneartional Family*). 서울: 하나의학사. (원전 1994 출판).
- Smedes, L. (2005) 용서의 미학 (이여진 역, *The Art of Forgiving*) 서울: 이레서원. (원전 1997 출판).
- Worthington, E. L. (1998). Dimensions of Forgiveness: Psychological Research & Theological Perspectives. Philadelphia, PA: Templeton Foundation Press.
- Worthington, E. L. (2006). 용서와 화해: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이어 주는 9 계단(윤종석 역, *Forgiving and Reconciling*). 서울: IVP. (원전 2003 출판).
- 경향신문 (2019.5.4). 조손가족 “어떻게 지원 받는지 몰라요”... 찾아가는 돌봄 절실. <http://news.khan.co.kr> 에서 2019년 12월 18일 인출.

【 Abstract 】

A Study on Christian Counseling for Reduction of Depression of
Grandparents in GrandParents-Headed Family
: Focusing on adult child forgiveness using Hargrave's model

Park, Anna

Hessed Counseling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Hargrave's family forgiveness model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by reducing the depression of grandparents in GrandParents-Headed Family and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model in Christian counseling. Depression of grandparents begins with the misery of adult children, is affected consistently by them throughout grandchild-rearing and reduces the quality of life in old age, so counseling dealing with forgiveness is necessary because forgiveness effectively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by increasing positive emotions. In the 'salvage' stage of Hargrave's family forgiveness model, the insight level leads them to see the conflicts with their adult children objectively and to consider the impact of their reactions on the present and the future, while the understanding level provides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adult child as a person as well as adult child's position. This increases the likelihood of forgiveness, reduces negative emotions such as anger, and increases positive emotions such as feeling of libera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grandparents. This model is worth using for Christian counseling for grandparent counseling, but Christian counselors need to use it rightly by helping grandparents recognize forgiveness not for themselves but for God who forgive them so that they willing to forgive their child as result of obedience.

Key words: GrandParents-Headed Family, Forgiveness, Hargrave, Family-forgiveness model, Christian counseling